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천만 관광시대 의미

- 6백만을 넘어 1천만을 향한 도전을 중심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교통국장 **고 경 실**

## I. 머리말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 발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회와 위기 또한 동반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저장한 외국이나 국내 상황은 제치고 우리 상황을 직접 진단해보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역량은 얼마나 될까 하고 생각해 본다

우리 면적은 1,848.51km<sup>2</sup> 전국의 1.9%. 그러나 싱가포르 보다는 2.7배가 크다. 인구는 56만명, 지역총생산은 8조 7천억 이중에 농림어업 16.4%, 제조업 3.4%, 서비스업 및 기타 80.2%, 재정규모 2조7천억, 관광주 수입 2조8천억, 한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바로 인구를 의미하고 있다.

싱가포르인 경우 면적은 적지만 인구는 턱도 안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GDP는 2만불을 넘나들고 있지만 우리 제주는 1만 5천불 내외에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런 여건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다양한 규제혁파를 하면서 민자를 유치하려는 의도는 결국 관광요인을 더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가장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공항 건설도 관광객 유치 양적 수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어느 지역과 같이 소득수준을 3~4만불시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을 경쟁력 있게 만들어야 하

는 것이다.

말은 그리하면서 실체는 거리가 있다면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만일 지금 6백만에 달해있는 관광객 규모가 갑자기 줄어들었다면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골프장이며, 박물관 등 관광지를 비롯해서 서비스산업이 찬바람이 될 것이다.

바로 제주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지금도 공급은 꾸준히 늘고 있다. 민자유치를 비롯한 서비스업은 쉬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채워줄 수요가 정체된 다거나 후퇴하면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처럼 한 자릿수 성장 역시 욕구 불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흔히 뜻있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큼직한 임팩트가 있어야만 제주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제기해 온 것이다.

지난 한 2년에 걸쳐 위기란 말이 많이 퇴색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또한 사실이다. 외부 의존도가 아주 높은 현실을 어떻게 타파하고 명실공이 국제자유도시의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가 우리에게겐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과제에 창조적으로 도전한다는 수단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로의 전환이었으며 지금 도약 단계에서 다양한 에너지 통합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음이다

기초자치제의 민주성에 흠집이 있다 해도 효율성을 확보해서 다른 지역보다 앞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급선무였다. 또한 남의 것을 모방하기에는 시공간적 낭비가 크기 때문에 조기에 달성하는 방안을 찾아 나선 것이다. 그러기에 지금 시점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결국 1천만시대 관광시장을 형성하면서 다이나믹한 섬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 단계를 넘어서는 것은 국내외에 “**제주란**”의 미는 다양성 있게 접근될 것이며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세계관광산업시장의 중심이 되면서 자기 힘에 의해서 시장 조절 기능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자립적인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의 꿈을 이루는 길인 것이다.

## II. 요동치는 관광동향

### 1. 세계시장

세계관광기구(World Tourism Organization: WTO)에 의하면, 2010년 국제관광객(International Tourist) 증가율은 2009년 대비 약 1~3%로 천천히 성장하면서 2009년의 세계 관광시장의 약세에서 벗어날 것이라 전망된다. 2018년까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세계 6대 관광권역 중에서 유럽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이들 국가의 전략적 관광산업 육성 노력과 함께 관광객 유치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0년 세계 관광시장 점유율 1위 국가로 전망하고 있는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은 빠르고 강하게 상승하나 **구미주 지역**은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며, **아프리카 지역**은 2009년의 지속적인 상승세와 FIFA 월드컵 경기가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큰 약진

의 영향을 받아서 중동지역의 관광시장 전망도 낙관적이다. 세계여행관광협회(WTTC)는 2019년까지 관광산업이 세계 GDP의 9.5%로 성장하고 세계 총 고용의 8.4%가 관광관련 산업에 종사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관광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인식되면서 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유치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3.1%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저 1.3%, 최고 5.1%) 작년 이어 실업률의 증가가 예상되고, 경기부양책은 폐지되고 세금은 늘어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으나, 점차 소비자 신뢰지수가 높아지고 이자율 및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치 유지하여 관광산업도 회복 기미가 있다.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발병과 확산 여부가 관광 산업에 여전히 영향, 2009년에 이어 장거리 여행보다는 단거리 여행 선호 현상이 계속되고, 그린 투어리즘과 관련한 관광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 2. 해외 권역별 관광시장 전망

#### 【일본 관광시장 전망】

2009년 4/4분기 이후 일본경제는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불구하고 2010년 경제성장률은 1% 초반을 유지할 전망이다. 2009년 10월 이후 항공유류 할증료가 부활되면서 근거리 해외 여행지가 다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과 웰빙 중심의 생활패턴 및 가격보다는 질 중심의 소비심리의 트렌드 변화에 따른 그린·웰빙 관광 수요층이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관광시장 전망】**

‘세계의 공장’ 중국이 10년 뒤에는 미국을 대신 하는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중국 GDP 성장률은 약 8.3%, 내년 성장률은 9%로 회복하거나 더 높을 수도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시장 확대와 더불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중국, 대만 등 지역에서 제주로의 전세기 운항 돌풍이 계속될 전망이다. 올해 중국인 관광객 입도에 큰 역할을 한 국제직항노선 활성화 인센티브 제도가 또한 2010년에도 계속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한국 정부가 가장 큰 미래 관광시장인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한·중 양국간 무비자 입국 추진을 발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우선적으로 불법 체류 우려가 적은 중국 관광객에 대해 30일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중국인의 방한시장이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 관광시장 전망】**

2009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경제는 각 -2.5%, -3%의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2010년 경제성장률은 각 3~5%, 2~3%로 소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동남아의 내수경기 침체로 방한 관광객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을 통한 제주 인지도의 상승으로 내도 관광객 성장률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다. 2010년은 동남아 국가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어 해외여행시장이 침체 현상에서 벗어나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개최 성과로 한국과 제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으로 가족관광객과 기업체 인센티브단의 지속적 내도가 예상된다. ‘2010-2012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관광공사 동남아 지역 해외지사에서는 한류 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국 인지도 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관광시장 전망】**

미국 비즈니스 경제연합(National Association for Business Economics)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를 고비로 경제는 성장세로 전향하며, 2010년 GDP는 약 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미국인의 해외여행 추세는 3% 증가할 것이나,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해외여행 비율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신종플루로 인해 한국의 언론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교포의 단체관광, 친지 방문 취소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취소보다는 연기로 봐야하며 내년은 올해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3. 국내시장**

국내 여행사들이 인바운드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증대(11월말 700만명 돌파, 전년대비 14%상승)와 한류열풍 및 정부의 관광선진화 정책으로 각종 지원이 늘어나 인바운드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은 한국방문의 해가 시작되고 의료관광과 MICE 산업에 대한 중점적인 투자가 시작되는 등 정부의 관광산업활성화 추진에 있어 중요한 기점이 되는 해”라며 관광산업 주요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꼭 필요하고도 핵심적인 사업들을 추진해나 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핵심 사업으로는 의료관광활성화(42억원 예산투입), MICE산업육성(121억 예산 편성)시책을 추진하고 있다.(전년대비 51% 증액)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2010년 상하이 EXPO를 계기로 중국정부와 상호무비자 입국 추진 계획이다 (‘10년 1월 한중관광진흥협의회 결정).

2010-2012년 한국방문의해를 맞아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 전개하고 있는데 “**한국방문의해 위원회 추진 2010년 4대 사업**”으로는 ① 실제 신규 수요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별 차별화된 해외마케팅 ② 한국을 방문했을 때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인센티브 제공 ③ 외래 관광객에게 고품격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특별 이벤트 개최 ④ 한국에 도착해서 돌아갈 때까지 환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대서비스 개선 캠페인을 선정하였다.

서울, 부산, 제주 일색이었던 인바운드 여행목적지가 각 지자체 유치노력과 객실확보 용이 등으로 지방 인바운드 상품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여행목적지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경주·설악산·무주·단양·안동 등 지방 관광 상품이 인기 급상승 중이고, 담양 창평, 장흥 유치, 완도 청산도, 신안 증도 등 4개 슬로시티 지역에 한옥 민박 건립을 추진을 통해 전통 주거문화 체험형 관광객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대교 개통으로 인천공항에서 송도국제도시까지 대폭 개선되는 접근성과 4개의 신축호텔을 활용해 기존 경유형 관광에서 탈피,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일본, 중화권, 동남아 관광시장을 대상으로 숙박관광객 1만 5천명 유치 추진하고 있다.

#### 4. 제주특별자치도

##### 【내도 내국인 관광객 전망】

2010년은 국내 경기의 활성화가 예상되고 고환율의 이점이 사라지면서 내국인의 아웃바운드 관광이 증가함에 따라 내도 관광수요가 줄어들면서 전년대비 약 3% 증가가 예상된다. 저가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이 이루어지면서 더욱 저렴한 경비로 인해 내국인의 해외 관광은 더욱 증가될 전망으로 내도객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제주항공 : 일본, 태국, 진에어 : 태국, 마카오) 녹색, 웰빙, 체

험 관광으로의 트렌드가 변화되면서 단체관광객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최근에는 가족, 개별관광객이 녹색, 체험, 웰빙 관광을 위하여 방문하는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2009년도 10대 히트 상품에 등재된 “**제주올레**”에 대한 인기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2007년 UNESCO 세계자연유산 등재, 2009년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세계 7대자연경관 28곳에 랭크 및 2012년 세계자연보존총회(WCC) 유치가 확정되면서 국내·외 제주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 【내도 외국인 관광객 전망】

2010년은 금년의 세계 경기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서 세계경제 전망이 비교적 밝은 편으로 세계관광시장의 발전과 함께 방한객의 상승과 연계되어 내도 방문객도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전 세계 관광시장의 불황속에서도 제주는 섬 관광정책포럼(ITOP)회원국 세계 9개의 섬 중에서도 단연 1위의 성장률을 이루어낸 것은 매우 독보적인 현상으로 이런 추세를 이어 2010-2012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추진하는 사업의 시너지 효과로 제주인지도 상승 및 내도객 증가가 예상된다. 지난해 초의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창궐로 4~5월 내도 외국인 관광객이 주춤하였으나 지속적인 제주 청정이미지 광고효과로 내년에는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 예상된다.

금년에는 국제 크루즈 관광유람선 9척이 53회에 걸쳐 제주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어 국제크루즈 관광유람선을 이용해 관광객들의 방문횟수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크루즈 선박별 입항계획을 보면 일본 후쿠오카와 제주, 중국 상하이 항로를 운항하는 5만 2,926톤급 크루즈 '코스타 크라시카호'가 20회에 걸쳐 제주를 방문하고 일본의 텐진에서 제주, 후쿠오카 항로를 운항하는 5만3049톤급 크루즈 '코스타 로만티카호'가 21회 제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또, 상하이에서 제주를 거쳐 부산으로 가는 항로를 운항하는 6만9,130톤급 '레전드호'가 제주를 2회 방문하고, 일본에서 제주, 부산을 잇는 항로를 운항하는 2만6561톤급 '퍼시픽비너스호'와 인천과 제주, 일본을 잇는 2만8,253톤급 '실버세도우호', 일본-제주-부산 항로를 운항하는 '니폰마루호', 부산-제주-일본 항로를 이용하는 '아스카2호'가 각각 1회씩 제주를 방문한다. 이 외에도 부산-제주-목포 항로를 이용하는 '씨보른 프라이드호'가 제주를 4회 방문하는 등 총 53회에 걸쳐 국제크루즈 관광유람선들이 제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일본 시장인 경우 내도 일본인 관광객은 금년과 비슷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나 지속적인 제주홍보 및 예코투어를 연계한 마케팅을 전개하여 내도 일본관광객 촉진을 위해 사업 추진 예정이다. 제주-오사카 간 항공이 주 6회에서 주 7회로 증편되거나 보잉737편으로 항공기가 교체되면서 총 공급좌석수가 감소하게 된다. 좌석수가 적은 항공편의 경우 단체객 유치에 어려워 전체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제주-후쿠오카 간 항공 또한 지난해 4월부터 주5회로 증편되었으나 다시 주 3회 감편될 것이다. 지난해 중국 등 해외지역 여러 기업이 사원 연수지로 제주를

선택하는 등 최근 제주가 해외지역 대기업 연례회의, 인센티브 여행 목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제주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인센티브투어 & 컨벤션유치 지원 마케팅”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2010년부터 공격적 마케팅활동으로 인센티브단체 외래 입도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싱가폴, 말레이시아등의 동남아 시장은 2010년 정치 및 경제상황이 낙관적임에 따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넓혀진 제주 인지도를 바탕으로 가족관광객 및 기업체 인센티브 단체의 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주권 시장의 경우, 경기 침체로부터 서서히 회복되고 경제전망 또한 상승세로 전환, 관광산업의 침체 또한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방문의 해 사업추진, 2012년 WCC 제주 유치, MICE 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제회의 관광객 유치 등 제주특별자치도 인지도 상승에 따른 입도관광객 증가 예상된다.

【항공 좌석공급】

'09 ~' 10년 동계기간('09.10.25~' 10.03.27) 운항스케줄 조정으로 '08~' 09년 동계기간과 비교하여 주 846회에서 151회 증편(17.9%)된 주 997회 운항되고 공급석은 주 303.870석에서 15.7% 증가한 주 351.654석이 공급될 예정이다.

〈 주당 항공공급 편 수 〉

항공사	'08~ '09 주당편수	'09~ '10 주당편수	증감(%)	비 고
계	846	997	17.9	
대한항공	352	318	-18.5	
아시아나	281	231	-17.8	
제주항공	129	154	19.9	
진에어	84	112	33.3	
에어부산	0	70	-	
이스타	0	112	-	

이중 김포·제주노선의 경우 저 비용 항공사의 증편으로 주 516회에서 주 576회로 60회 증편(11.6%)되고 공급석도 주 174,970석에서 207,603석으로 18.7% 증가되어 성수기 좌석난

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선은 정기편은 소폭감소가 예상되나 정기성 전세기의 증가로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 공급좌석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제주 국제선 정기편 주요 현황 〉

국제	지역	항공사	2009년		2010년		비고
			좌석수	편수	좌석수	편수	
일본	동경	대한항공	266	매일	266	매일	
	오사카	대한항공	266	주6편	180	매일	
	나고야	대한항공	266	주3편	266	주3편	
	후쿠오카	아시아나	147 176	주5편	147	주3편	
중국	북경	대한항공	180	주4편	180	주4편	
	상해	동방항공	155	매일	155	매일	

### Ⅲ. 1천만 관광시대를 향한 전략

#### 1. 1천만 시대의 의미

실용적으로 접근해 보고 싶다. 제주특별자치도 과연 무엇을 동력산업으로 이끌어야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인가? 지금처럼 1차 산업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가정 해보자. 한·미 FTA, 한·중 FTA, 한·일 FTA, 한·EU FTA 등 주변국들과 자유롭게 상품거래가 되고 관세가 없어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인가. 결국 고급의 친환경 농·수·축산물이 저렴하게 공급된다면 우리시장은 전멸할 것이다. 단 새로운 친환경 고효율 전략이 적용된다면 생존가능성이 높다.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결국 3, 4만불 시대 소득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핵심 산업이 된다는 것은 보장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안 동력산업이 바로 4+1산업인 것이다. 교육, 의료, 관광, 첨단산업 그리고 1차산업인 것이다. 희망이 불씨를 지피고 있는 것이 영어교육도시 성공이고 투자개방형 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첨단산업단지 성공 또한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중요한 요소는 관광산업일 수밖에 없다. 앞서 거론하고 있는 산업들이 결국 관광산업과 어떻게 복용합적인 발전이 되느냐 여하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투자유치니 민자유치니 모든 게 관광객 증가가 중요요인이 된다. 1차산업 역시 자체 소비시장을 튼튼히 하는 길은 관광객 유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매년마다 2자릿수 이상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면 투자자에게 투자의욕을 자극 하겠지만 정체되어 있다면 발길을 거두고 말 것이다. 모든 산업의 성패의 열쇠를 관광객 유치에 두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중요한 시각으로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심정이다. 도민 모두가 신공항 건설이 중요한 현안 사항으로 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용객 증가를 신공항 변수의 중요한 요건으로 잡고 있다. 딱히 답이 먼져냐, 계란이 먼져냐 하는 논리도 될 수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전략을 잘 수립해서 마케팅을 강화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제주로 오고, 그러면서 동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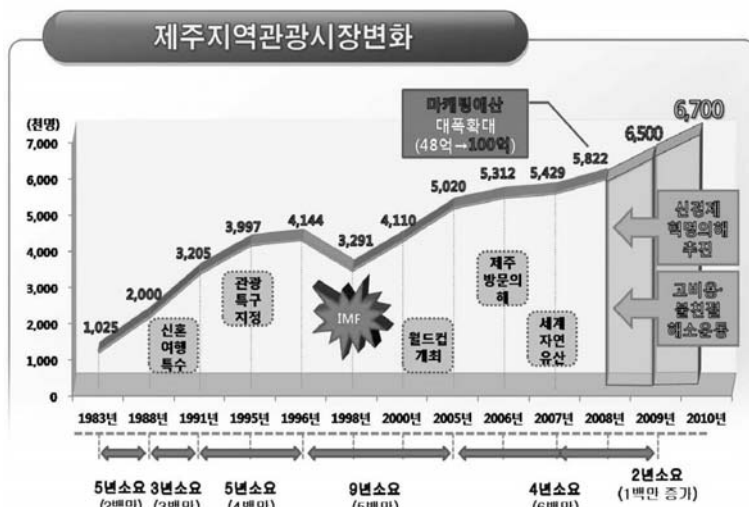
발적으로 다른 연관 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필자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지금 상황도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함으로써 흑자를 기록한다고 볼 수가 없다. 최소한 관광객이 850만명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공급된 관광서비스산업 전반적으로 흑

자 현상이 누적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2008 ~ 2009년 2년에 걸쳐 관광객 순수 증가율은 110여만명 증가 하였다. 그동안 4년, 9년, 5년에 걸쳐 1백만 관광객을 유치했었다. 결국 2 ~ 3% 성장세를 유지한 반면, 공급측면은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이룬 것이다.

〈표 1〉 제주지역관광시장 변화



〈표 2〉 관광객 증가 및 객실 판매율 추이  
관광객 및 객실 증가 현황(일반 숙박업 포함)

구분	년간관광객수		1일평균 관광객	숙박 시설 현황		객실판매 율(%)	비고
	(천명)	증가율(%)		개소/실	증가율(%)		
'03	4,913	-	13,460	1,516개소/25,193실	-	48.8	
'04	4,932	0.39%	13,510	1,549개소/27,208실	2,015(8.00%)	45.4	
'05	5,020	1.78%	13,750	1,566개소/28,379실	1,171(4.30%)	49.7	
'06	5,312	5.82%	14,550	1,623개소/30,066실	1,687(5.94%)	54.8	
'07	5,429	2.20%	14,870	1,633개소/30,863실	797(2.65%)	55.3	
'08	5,822	7.23%	15,950	1,608개소/31,381실	518(1.68%)	57.5	

⇒ '03 ~ '08년 관광객 누적 증가율 : 18.50%/객실수 누적 증가율 : 24.56%

※ 관광객 증가율 보다 객실 증가율이 6.06% 높음



이상과 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명실공이 아시아 최고의 국제자유도시로의 성공을 다짐하는 한편, 선진화된 명품지역으로 국제사회에 당당히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1천만 관광시대의 그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 2. 1천만 시대 달성을 위한 전략

상상하는 것은 이루어진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꾸는 꿈은 이뤄질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관에 엔진을 달아 온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제도가 광역자치단체로 흡수되는 과정을 살아왔다. 지금이야 육지부에서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일정 규모를 만들겠다고 통합작업을 하는 지역들도 있다. 정치인으로 꿈꾸어 왔던 인사들이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힘 있는 서비스를 맞보아 온 주민들에게는 버리기 아쉬운 현상일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정보시대를 넘어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특권意識도 버려져야 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등의 일들이 사라지거나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 확인 가능 해졌다. 자질구레한 일들이 내 핸드폰 하나로 모든 서비스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왜 행정구역에 대한 아쉬움을 가져야 하는지 분명 미래 꿈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중요한 임팩트는 지역소득을 어떤 방향에서 찾아서 무엇을 핵심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는지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관광객 1천만 시대를 기반으로 한 의료, 교육, 첨단산업을 성장 시키려면 에너지를 모으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부속 섬이긴 하지만 언제까지 재정 의존도를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살아야 하고 중앙경제 논리에 의해서 울고 웃어야 하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민해야 할 일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매년마다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미래를 희망으로 채울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한 수단이 필요한 것이다

태양이 뜨면 그림자도 생긴다. 물론, 달이 떠도 그런 것이다

모든 생활에 이치에는 긍정과 부정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이다. 따라서 부정을 극복하는 방법도 배우고 깨달아야 할 일이다. 이런 것은 정책을 도입하는 차원에서도 별반 다름이 없다. 최근 “올레길” 상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면 이 상품이 긍정성만 있을까. 한차 가득 올레를 수없이 가다 보면 식생이 파괴되고 다양한 폐해들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따라서 어떤 상품도 양면성이 있는데 이런 문



제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미래 대비해서 관광객 유치를 끊임없이 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전략에 기초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사람중심의 관광산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친절하고 따뜻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출발에서 도착, 소비 그리고 귀환할 때까지 제주만의 인간 냄새가 나도록 해 나가는 것이 절대 필요할 것이다. 속았다, 푸대접 받았다, 정말 기분 나쁘다면 독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녹색 트렌드에 걸맞게 지구촌 사회에 이바지 하면서 인위적인 것보다 자연적인 치유를 제대로 도입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자원은 잘 보존되면서 인간에게 웰빙을 줄 수 있도록 정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관광객전용카지노 + 의료 + 교육 등 다양한 상품을 토대로 재원확보가 되고 복용합 엔터테인먼트의 인문관광 자원도 지속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넷째, 그러면서 공항, 크루즈선박, 쇼핑, 야간관광상품 등 새로운 창의상품과 문화콘텐츠가 실용화 되면서 품격을 높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또한 가격과 라이프스타일 문제를 접근해서 한 시즌이 지나면 새롭게 태어나는 상품으로 매년 새롭게 접근 할 수 있는 전략적 준비가 수반돼야 한다.

이런 몇 가지 전략이 뒷받침 될 때 우리는 1천만 관광시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지속 가능한 창조적 지역으로 그 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개별상품 하나하나 장단점을 부각시키면서 찬성과 반대를 나누어 하면서 시간을 쪼개는 경우가 있다. 언제나 그랬듯이 시간은 황금이라는 말은 인생에만 적용되는 말은 아니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다. 시기를 놓치고 나면 후회해도 허망할 따름인 것이다. 한번 어긋난 일이 제자리에 오기까지는 막대한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도전하는 일들이 영원성을 갖고 있지는 않는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상단계, 성장단계로 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1만 수천피트 상공을 가고 있다면 앞으로 3~4만 피트 상공으로 재진입하는 동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기 위한 동력엔진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엔진에 동력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것이 전략이 되어야 한다.

## IV. 맺음말

요동치는 관광시장을 보면 우리는 하루빨리 변해야 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강원도에서 관광마케팅비가 연간 5~6백억원을 넘어서는데 우리는 또 움츠려서 160억 수준이다. 그래도 많게만 느껴지고 있다. 감귤이나 1차산업은 5~6백억 상당으로 비교할 수 없다. 말은 중심이고 생명산업이다. 연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희망을 심어야 한다. 한계 있는 지방재정력으로 도약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자립적인 재정확보가 필수가 돼야 한다. 그래서 자립적인 재정확보가 필수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관광객전용카지노 사업일 수 있다. 최근 4단계 제도개선 사항 중에 관광객서비스 제품에 대한 부가세 환급제도가 정부안으로 채택 되었다. 어찌면 날개를 달았다는 느낌이다. 하루에도 많은 일을 한다. 그러나 그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다. 그러나 꼭 해야 할 일을 놓치면 그 결과 얼마 없어 부작용이 생긴다. 여기서 저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남의 탓으로 돌리기 위한 눈동자를 돌린다. 그래서 안 된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시대 성장할 만큼 지역성장을 책임져야 한다. 그래야 후손들도 자기 책임 하에 이 땅의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관광산업이 중요함도 인간 삶의 일부다. 사람이 하는 일들인 것이다. 혹자가 말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통계수치가 말해 주는 시대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질이니, 양이니 보다는 누구든 우리에게 찾아오면 가슴이 행복한 섬으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함을 주장하면서 맺겠다.